

## 韓國의 勞動生産性에 關한 研究

<生産 및 産業構造部問>

李 恩 馥

韓國生産性本部

### < 1 >

一國의 經濟力 乃至 産業力의 水準은 여러가지 方法으로 表現될 수 있다. 生産性은 바로 이러한 여러가지 方法中의 한 方法이 될 것이다.

특히 生産性은 實存하고 있는 設備, 技術, 設備規模, 資本, 經營管理 등의 氣準과 그 集約度는 勿論 精神, 文化의 背景까지도 反映된 綜合的인 投入의 產出에 대한 關係值로 把握된다는 點에서 그 意義는 자못 크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同一한 製品을 設備 技術 資本이 同一한 條件下에서 生産하는 業體가 數個 있다 하더라도 各 業體의 生産性은 반드시 一致하지 않을 뿐 아니라 相異한 것이 當然한 것은 바로 前述한 바와 같이 綜合的概念으로 把握된다는 데 뜻이 있다.

勞動生産性은 이와같은 生産性을 測定하는 여러가지 方法中에서도 가장 容易하게 計算될 수 있고 近似한 結果值를 算出할 수 있는 한편 生産性 氣準을 比較, 認識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代表的으로 使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에 KPC에 의하여 처음으로 1960年度分부터 週하여 勞動生産性指數를 測定, 編制하여 國內外에서 公認된 勞動生産性指數로서 活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같은 우리나라 勞動生産性指數編制와 아울러 「韓·日間의 勞動生産性比較」 「우리나라 産業의 勞動生産性測定」 「우리나라 企業에 있어서의 生産性活動의 實態」 「우리나라 生産性的 動向과

成果配分構造의 實態」 등의 調查結果가 發表되었다.

本 研究에서 다만 勞動生産性指數를 土臺로 몇가지 點을 示適하고자 한다.

指數의 基準年度設定은 政府가 每 5年에 政府指定統計基準年度를 變更하는 데 따라 1960年을 基準年度로 할 것을 1965年, 1970年에 各各變更 編制하였으나 長期動向을 把握하기 위해서는 1965年을 基準年度로 하여 1970年 以後分을 換算하였으며 短期動向을 把握하기 위해서는 1970年을 基準年度로 하였다.

### < 2 >

鑛業, 製造業, 電氣業을 包含하는 産業綜合指數는 1965년부터 1973년까지 9年間에 걸쳐 年平均 13.2%의 向上 위에서 2.6倍의 向上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高向上은 鑛業이 9年間 1.33倍의 向上에 不過한 데도 不拘하고 電氣業의 2.91倍, 製造業의 2.76倍의 高向上에 힘입은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産業間의 勞動生産性 向上의 差異를 보이는 것은 産業政策의 方向을 暗示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即 電氣業의 急速한 設備大型化에 依한 發·配電量의 急增에 의한 2.91倍, 또한 製造業이 60年代後半에 들어서 輸出增大를 뒷받침한 輸出産業中心의 新規 設備投資를 통한 生産增大에 의한 2.76倍의 勞動生産性 向上을 가져 온 데에 起因하고 있다.

그러나 別表 1의 「우리나라 勞動生産性指數의 動向」中 産業總合과 製造業에 있어서 增加率이 1965年 以後 1969년까지 急増하고 있으나 1970年 以後 繼續 下落하고 있는 特徵을 보이고 있다

이는 60年代 後半의 2次 5個年經濟開發計劃을 成遂시키기 위해 莫大한 國內外投資에 의한 設備가 急激히 增加하였는 데도 不拘하고 産業界가 資金不足속에서 그 資金調達을 私債에 依存하여 不良한 財務構造 속에서 經營不實의 氣運이 돌고 있는데다 우리나라 經濟의 依存도가 높은 美國과 日本의 인플레이션속의 不況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한 高價의 原資材導入과 硬化되어 가는 海外市場事情으로 極度の 不況에 達한 國內經濟事情이 反映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推測은 表에서 보는바와 같이 G.N.P. 成長率과도 같은 關係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N.P. 成長率과 勞動生産性 增加率

年度	65	66	67	68	69	70	71	72	73
G. N. P. 成長率	6.1	12.4	7.8	12.6	15.0	7.9	9.2	7.0	16.9
産業總合 勞動生産性	15.9	4.1	17.6	17.7	23.4	13.1	7.6	11.7	7.7
製造業 勞動生産性	17.5	4.0	17.7	19.9	26.4	12.7	7.4	11.9	9.9

前記表에서 73年の 境遇 G. N. P. 成長率은 16.9로 高成長을 보여 1969年을 凌加하고 있는 데도 不拘하고 勞動生産性은 10% 前後의 低調한 水準에 있음은 1973年 10月 以後 石油쇼크에 의한 世界의 物價暴動으로 因하여 產出物量增大率보다 市場價格仰騰으로 因한 貨幣表示 GNP額의 急成長으로 나타난 것으로 斷定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何如間 國民經濟에 있어서 勞動生産性增加率은 經濟成長率과는 或種의 相關關係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

우리나라의 勞動生産性은 大略 高向上型이라고 할 수 있음은 前述한 內容을 通하여 짐작이

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가까운 日本의 境遇와 比較하면 어떠한 問題를 發見할 수 있을 것인가, 別表에서 보는바와 같이 1965年을 基準으로 할 때 1972年の 産業總合 勞動生産性에 있어 韓國(241.6%)은 日本(217.7%)을 앞서고 있다. 그러나 鑛業部門에 있어서는 日本(198.3%)이 韓國(140.5%)을 앞서고 있고 製造業部門에 있어서는 韓國(251.3%)이 日本(218.9%)을 앞서고 있다. 그러나 指數의 比較以前에 日本(1969年)에 對한 韓國(1970年)의 製品別 勞動生産性을 比較하면 다음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國의 勞動生産性水準은 日本의 半以下의 水準에 있어 韓·日間의 隔差는 尤甚하다.

勞動生産性 水準의 韓日比較

名 目	單 位	%
綿 絲(120番手)	捆	39.28
紡 毛 絲 ( 7番手)	kg	33.63
梳毛絲. 울튼(48番手)	kg	46.63
碎 木  팔 프	㉔	44.68
白 上 紙	㉔	31.01
新 聞 用 紙	㉔	43.65
合 板	1,000S/F	35.91
타이어· 튜브· 프 램	㉔	20.00
尿 素 肥 料	㉔	33.13
시 멘 트	㉔	32.09
鑄 鐵	㉔	67.23
電 氣 爐 網	㉔	42.80
旋 盤	臺	50.94
電 線	㉔	51.49

註：品目別로 日本水準을 100.00으로한 韓國의 水準임

이와같은 韓日間의 勞動生産性水準의 隔差의 背景을 다시 觀察하면 日本은 1965年 以前에 相當水準에 到達하였음에도 不拘하고 勞動力 不足으로 既存設備의 自動化와 省力化를 強力한 資本金을 背景으로 急進展시키고 있다.

또한 經營管理面에서도 우리를 앞서고 있는 實情에 있으며 産業은 成熟段階에 놓여있는 속

에서 勞動生産性 向上이 이루어지고 있다.

反面 韓國은 낡은 既存設備의 近代化는 고사하고 新規設備投資에 있어서도 勞動生産性을 念頭に 둔 投資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實情속에서 勞動生産性의 高向上率을 보이고 있는 緣由는 産業基盤이 얕으며 基準이 되는 勞動生産性 水準이 本來 얕은데다 同業種內에서의 新規投資가 차지하는 比重이 높아지는데 따라서 增加率의 急上昇을 가져오는것 이므로 다만 近代設備의 投資에만 依存하는 勞動生産性 水準은 韓國産業이 이대로 成熟段階에 발을 들여놓는데 따라 投資가 緩慢하여지게되면 勞動生産性 增加率은 鈍化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生産性意識이 지금부터 成熟産業社會의 對應을 위해 準備하기 위해서도 高潮되어야 하고 普及되어야 할 充分한 理由를 찾게된다. 또한 國際間 經濟競爭의 種目的 根源을 勞動生産性向上에서 찾아야 함을 日本과의 比較에서도 提示하고 있다.

< 4 >

하여간 韓國의 勞動生産性은 日本을 考慮에 넣을때 더욱 빨리 增加하여야할 處地에 놓여 있지만 現在의 增加率 趨勢도 그나름대로 높은 便임은 疑心の 餘地가 없다. 그러면 그나름대로의 勞動生産性의 高向上을 가져온 原因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1970年을 基準으로한 産業總合 勞動生産性을 보면 1973年에 129.4%를 보여 每年 8.9%의 增加를 가져온 것이다.

이와같은 結果는 產出量과 勞動投入量이 다같이 高率이면서도 產出量 增加率이 勞動投入量 增加率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데서 오고 있다. 特히 製造業 分野에서 그러하다.

1973年 勞動投入 및 產出動向(1970年=100)

區 分	勞動生産性	產出量	勞動投入量
産 業 總 合	129.4	179.4	138.6
鑛 業	105.7	114.5	108.3
製 造 業	132.1	186.9	141.5

그러나 鑛業에 있어서는 產出量과 勞動投入量의 各增加幅이 僅少한데다 거의 같은 程度에 不 過한 나머지 勞動生産性은 거의 停滯狀態에 있다.

이와같은 觀察에서 눈을 돌려 勞動裝備率과 機械裝備率 그리고 資本集約度를 살펴보아도 鑛業과 製造業間에는 큰 隔差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바로 勞動生産性 向上에 直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自然히 相對的으로 勞動이나 管理가 勞動生産性 向上에의 寄與度가 微微함을 暗示하는 것이된다.

1972年 各 裝備率과 資本集約度 增加率(1967年=100)

區 分	鑛 業	製 造 業
勞 動 裝 備 率	256%	320%
機 械 裝 備 率	222	340
資 本 集 約 度	213	295

$$\text{資本集約度} = \frac{\text{負債} + \text{自己資本}}{\text{從業員數}}$$

$$\text{機械裝備率} = \frac{\text{機械裝置}}{\text{從業員數}}$$

$$\text{勞動裝備率} = \frac{\text{有形固定資産} - \text{建設假計定}}{\text{從業員數}}$$

前記表에서 보는 바와같이 各 裝備率에 있어 서나 資本集約도에 있어서나 다같이 製造業의 경우는 鑛業의 경우에 比하여 50%가 높은 增加

< 5 >

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事實을 놓고 韓國의 一部 識者 또는 企業人中에는 勞動生産性 向上은 勞動者에서가 아니라 資本과 設備에 依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니 만큼 生産性을 賃金에 結付시키지 말고 꼭 그럴 必要가 있으면 純粹한 勤勞 寄與部門만을 反映시켜야 한다는 意見을 내 세우기도 한다. 生産性은 本來 經營合理化란 概念과는 달리 生産性 向上을 通하여 얻어지는 成果의 配分問題와 直結이 된다. 即 賃金引上이나 業務 策定에 引用되어야할 基礎資料인 것이다.

우리 韓國의 경우는 아직 生産性, 賃金, 物價가 綜合的으로 引用 活用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結果로 나타난 數值를 한자리에 綜合하여 그

關係를 觀察하여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注目할 일은 名目賃金과 實質賃金과의 甚한 隔差이다. 이는 勿論 物價가 介在된 結果 얻어진 隔差라고 할 수도 있으나 賃金政策에 있어 크게 問題로 삼을만한 點이라 아니할 수 없다. 卽 實質賃金を 勞動生産性에 더욱 接近시켜야 하느냐 하는 問題이다. 그렇게 될때 名目賃金은 더욱 큰 幅으로 引上시켜야 된다는 問題에 逢着한다.

名目賃金を 더욱 크게 引上한다는 것은 物價 引上을 賃金引上으로 吸收시켜가며 物價를 慢性的으로 放置시키는 結果는 안가져올지 더 나아가서는 韓國은 低賃金時代에 終末을 가져오고 日本과 같이 名目上 高賃金時代로 접어들고 賃金 인플레이를 誘發하는 한 原因으로서 받아들여야 될 時代에 접어들어가야 하느냐 하는 點에 留意하지 않을 수 없다. 特히 政府와 產業界는 今年에 들어서서 賃金 引上에 熱을 올리고 있다는 點에 비추어 깊이 觀察하여 불만한 問題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現在 確家히 物價를 安定시키는 일은 至難하고 賃金を 引上시키는 일은 安易하다. 우리는 生産性을 中心으로 하여 至難한 物價安定과 安易한 賃金引上이 보다 어느편

에 重點을 두어야 할것인가의 問題에 直面하고 있다. 結論적으로 指摘하면 名目賃金 增加率은 製造業勞動生産性 增加率의 거의 2배에 가까운 180%에 達하고 있으나 物價로 因하여 實質賃金 增加率은 勞動生産性 增加率의 77%에 不過한 實情이다.

1973年 生産性, 賃金, 物價動向(1965年=100)

區 分	製造業者 勞動生産性	名目賃金	全都市消費 者物價指數	實質賃金
指數動向	276.1	499.4	233.0	214.3
對生産性	100%	180	—	77

< 6 >

勞動生産性에 關한 家態와 그 問題될만한 點을 몇가지 살펴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生産性이란 課題가 韓國經濟속에서 뚜렷하게 浮刻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음을 다시한번 吟味하면서 經濟政策의 側面에서 또 企業經營의 側面에서 그리고 賃金政策과 物價政策의 側面에서 研究하고 反映시켜 나갈 問題가 있음을 感知할 수 있다.

우리나라 勞動生産性指數의 動向

產 業		1960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産業總合	舊基準	64.8	79.4	86.3	100.0	104.1	122.4	144.1	177.8	201.1	216.4	241.1	260.2
	(增加率)	—	5.7	8.7	15.9	4.1	17.6	17.7	23.4	13.1	7.6	11.7	7.7
	新基準 (增加率)	—	—	—	—	—	—	—	—	100.0	108.9	117.5	129.4
鑛 業	舊基準	75.2	91.1	92.9	100.0	100.7	113.1	113.7	108.0	126.2	134.7	140.5	133.4
	(增加率)	—	0.2	2.0	7.6	0.7	12.3	0.5	△0.0	16.9	6.7	4.3	△5.0
	新基準 (增加率)	—	—	—	—	—	—	—	—	100.0	100.2	96.3	105.7
製造業	舊基準	63.9	78.2	85.1	100.0	104.0	122.4	146.8	195.5	209.0	224.5	251.3	276.1
	(增加率)	—	6.5	8.8	17.5	4.0	17.7	19.9	26.4	12.7	7.4	11.9	9.9
	新基準 (增加率)	—	—	—	—	—	—	—	—	100.0	109.8	119.7	132.1
電氣業	舊基準	52.6	62.9	80.9	100.0	119.4	146.8	138.4	172.3	198.1	242.0	257.3	291.8
	(增加率)	—	9.6	28.6	23.6	19.4	23.0	△5.7	24.5	15.0	22.2	6.3	13.4
	新基準 (增加率)	—	—	—	—	—	—	—	—	100.0	122.2	130.0	147.3
										—	22.2	6.4	13.3

(註) ① △表는 「마이너스」表示임. ② 舊指數의 1973年數値는 新指數를 換算하여 連結한 것임.